

1 개요

오설룡 따님아기 본풀이는 마소의 간을 내어 먹기를 좋아하던 아기씨의 영혼을 조상으로 모시게 된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오설룡 따님이 아기 때 밤에 몰래 나가 마소의 간을 빼어 먹어 마소가 죽어가니 아기의 손발을 잘라 다른 마을로 보내었는데, 남의 집 첩으로 살다가 죽어 돌아온 뒤로 다시 마소가 죽어가니 아기씨의 혼이 미친 것이라 하여 굿을 할 때마다 위하였다.

2 내용

오설룡 집안은 말도 백 수, 소도 백 수나 있고, 많은 종을 거느리면서 부자로 살았다. 자식이 없어 불공을 드려 딸을 얻었다. 아기씨가 구덕에서 자랄 때, 하루는 건강하던 말이 죽었다. 종들을 시켜 알아보게 하였다.

밤이 깊어지자 구덕에 누워있던 아기씨가 나와서 은대야에 물을 떠놓고 접시에 소금을 놓아 마소가 있는 곳으로 가서 간과 창자를 꺼내어 물에 씻고 소금을 찍어 먹었다. 아기씨는 아무일 없던 것처럼 몰래 돌아가 구덕에 누웠다. 종은 상전이 알면 큰일 날 일이어서 제대로 고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상전이 부르니 직접 보라고 말하였다.

그날 밤 상전이 직접 아기씨의 행각을 보았다. 그대로 두면 집안이 망하겠다고 여기고 아기씨의 손발을 잘라버렸다. 죽으라고 해서 대정에 귀양을 보내니 첩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자식도 없이 죽어 친정으로 되돌아왔다. 그때 다시 건강한 말이 죽어갔다. 점을 치니 아기씨 같은 조상이니 산신일월로 모시고, 올레코사나 큰굿, 작은굿 할 때 잘 모시면 부자가 되게 해줄 것이라고 하였다.

3 특징

귀하게 얻은 자식이 요람에 있을 때 몰래 마소의 간을 빼어먹다가 손발이 잘려 버려졌다는 내용이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설정을 담고 있다.

손발이 잘린 채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은 뒤에 그 영혼이 마소를 죽게 하여 조상신으로 모셔지게 한 것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4 핵심어

불공, 구덕, 은대야, 소금, 마소, 간, 창자, 산신일월, 올레코사, 큰곳, 작은곳, 오설룡 따님아기

5 원전 서지사항

오설룡 따님아기 본풀이(허남춘 외, 《고순안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6 관련 자료